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독일통일의 교훈¹⁾

1. Hans Meyer(前 뉘른베르크 대학 총장)

한반도 통일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유럽 연합과 독일통일의 사례가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유럽연합과 독일통일의 사례는 공통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차이점도 있다. 공통점으로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 두 사례는 상이하고 분단된, 경우에 따라서는 상호 경쟁적이고 적대적인 체제의 합병인 점이다. 둘째, 두 사례 모두 성공사례라는 점이다. 유럽연합의 달성으로 낙후된 국가뿐만 아니라 발전된 국가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게 되었으며, 통일 이후 독일은 국제사회에서 국익 추구 관점에서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만족스러운 해결책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유럽연합은 50년 이상의 과정을 거쳤으나 아직 완성된 단계

가 아니며, 독일통일 역시 아직 불완전한 단계에 있다. 넷째, 경제적 통일(연합)이 정치적 통일(연합)을 앞섰다는 점이다. 다섯째, 강자가 약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함으로써 통일(연합)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이다.

유럽연합과 독일통일의 차이점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유럽연합에서는 회원국들이 국가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독일통일에 있어서는 구 동독이 독일연방공화국에 흡수되었다. 둘째,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경제연합이 이루어진 뒤에 화폐통합이 이루어졌으나, 독일통일의 경우에는 경제통합과 화폐통합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셋째, 유럽연합은 장기간의 통합기간을 거침으로써 점진적인 변화의 길을 걸었으나, 독일통일은 단기간에 이루어짐으로써 급속한 변화를 겪었다.

1) 이 자료의 1.~3.은 지난 4월 9일부터 3일간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4회 세계한민족포럼에서 독일 학자들이 발표하거나 질의에 응답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며, 4.는 4월 8일 자유베를린방송 관계자를 면담한 내용임.

독일통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가 스스로 붕괴하였기 때문이다. 동독은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태였으며, 집권층의 도덕성 붕괴로 인해 국민의 저항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독이 소련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됨에 따라 동독이 소련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통일 이후 동독의 산업은 거의 붕괴되었다. 동독의 산업시설이 낙후된 데다 동독인의 임금 인상으로 생산단가가 올랐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동구권 시장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통일 이후 13년간 동독 국민의 사회복지 보장은 서독이 맡게 되었으며, 많은 투자를 통해 동독의 산업시설을 현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동독은 통일 이전의 생산량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유럽연합 또는 독일통일 사례를 그대로 모방하지 않을 것이며, 사실상 두 사례를 그대로 모방한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두 사례의 세부사항을 연구하면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Ralf Rytlewski(베를린자유대학 교수)

서독의 동독 지원은 1:1의 교환관계였다. 즉 서독은 정치범 석방, 고속도로 건설 등을 조건으로 동독을 지원하였다.²⁾ 서독 언론은 이러한 정부 정책이 실리적이라는 판단과 아울러 동독과의 연대성을 강조

함에 따라 정부 정책을 비판하지 않았다. 서독 언론의 이러한 태도는 동독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경제수준이 저하된 것이므로 서독이 동독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역사인식에서 비롯되었다.

한편, 통일 이후 동독의 직업인들 중에서 사회주의 체제와 관련이 없는 자연과학 분야 종사자, 의사, 기술자 등은 비록 소득수준에 있어서는 서독보다 낮았으나 사회적 지위에는 변함이 없었다. 반면, 사회주의 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 및 언론 분야 종사자 등의 사회적 지위는 낮아졌다.

3. Bernhard Maleck(베를린자유대학 교수)

통일 이전에도 동·서독간의 인적 교류는 매우 활발하였다.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설치된 지 1년 후부터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기 이전까지 150만 명의 서독 주민이 동독을 방문하였으며, 동독 주민의 서독 방문은 연금대상자인 고령자에 한하는 등 제한적이기는 하였으나, 상호 방문을 통하여 두 체제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적대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다.

독일통일에는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독일은 통일 이후 반테러·반전 등 평화에 대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의 오명에

2) 1972년부터 1989년까지 서독의 동독에 대한 경제지원액은 정부 차원의 297억 마르크(149억 달러)와 민간 차원의 748억 마르크(374억 달러)를 합쳐 총 1,045억 마르크(523억 달러)에 달함으로써 연평균 61억 마르크(30억 5,000만 달러)가 지원되었음.

서 탈피하게 되었으며, EU에서의 역할 강화 및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에 노력하는 등 국제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통일 이후 13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분단의 잔재가 남아 있다. 2002년 말 기준으로 서독의 실업률은 8.8%인 반면, 동독의 실업률은 서독의 무려 2배 수준인 19.5%에 이르는 등 동독 주민의 75% 이상이 서독 주민에 대하여 열등감을 갖고 있다.

통일로 인해 서독 주민은 세금부담 증가로 인한 고통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나, 통일 이전으로 돌아가자고 공개적·집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은 없다. 동·서독 주민들이 아직까지는 서로에 대해 무관심하지만, 한 세대 이후에는 가슴과 머리로 통일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통일 사례에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통일을 말로만 표현하지 말고 항상 생각’하여야 하며, ‘통일이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으나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적대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화해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4. Reinhard Borgmann(자유베를린 방송 편집주간)

가. 독일통일 관련 방송의 역할

자유베를린방송(SFB)은 동베를린 지역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950년 서베를린에 설립된 TV 방송이다. SFB는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교회, 노

동조합, 기업 대표 각 1인으로 구성되는 방송위원회가 프로그램을 구성·편집하고 있다.

SFB는 선전·선동 목적이 아니라 순수 언론 입장에서 동·서독을 함께 비판하는 입장에 있었으며, 동베를린 주민들은 SFB를 통하여 서방 세계에 대한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다. SFB는 통일 이전에는 동베를린 주민에 대한 정보제공을 주 기능으로 하였으나, 통일 이후에는 동·서독 통합을 위한 방송으로 그 기능을 전환하였다.

SFB의 프로그램 중 오락 프로그램은 동독 주민들을 현실에 안주하게 하는 단점이 있었으나, 뉴스·대담 프로그램은 동독 주민들로 하여금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는 자의식을 갖게 해줌으로써 베를린 장벽 붕괴에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동독 주민은 바이마르 공화국, 히틀러, 공산주의 체제를 거치면서 복종에 익숙해져 있는 등 민주주의를 경험한 바가 없었으나, SFB를 통하여 동독의 현실을 알게 되었으며, 동독의 상황을 서독과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통일 이후 13년이 지난 현재에도 동·서독 주민들간에는 지지하는 정당 및 선호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차이가 있는 등 정치·사회적 장벽이 존재하고 있으며, 생활습관의 차이로 TV 시청시간에 있어서도 서독 주민은 오후 12시까지 시청하는 반면 동독 주민은 오후 10시까지 시청하고 있는 등 방송 시청면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독 주민들은 통일 이후 동독 방송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동독 방송인

을 해고한 데 대하여 반발하고 있으며, 이는 독일의 사회적 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나. 한반도 관련 독일 언론 입장

독일 언론은 북한의 핵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이 동독보다 강한 독재정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의외롭게 보고 있다. 유려한 합 국가들은 북한이 좀 더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도록 군사적 해결보다는 대화를 통한 북한 문제의 해결을 선호하고 있으며, 남한의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북한과의 관계도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하바드가 통일된 경우에는 독일이 통일 이후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갈등을 겪고 있는 것 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남한 주민들은 북한 주민들의 기아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남·북한 주민들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많은 부담이 따를 것이다. 서독 주민은 동·서독간의 경제적 격차로 인해 통일 이후 기존의 세금 부담 이외에 추가로 연대세(連帶稅, 급여의 2%)를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통일을 이룸으로써 전쟁의 불안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다양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고, 전범의 오명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등 국가위상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독일의 통일 경험으로 볼 때, 한반도도 빠른 시기에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조영조】